

News

케이뱅크 결국 상장 철회…"적기에 재추진"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획을 공식 철회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상황을 고려

고금리 공포에…10명중 4명은 '고정금리'

금리 상승 부담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역전현상'도 겹치면서 신규 대출을 받는 10명 중 4명이 고정금리를 선택

금융그룹 신종자본증권 '대흥행'…배당 딜레마 해결 '비상구'

금융지주사들이 높은 이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잇달아 성공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

여전채 7개월 만에 최저치…車금융 한파 가시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여신전문금융채 금리가 진정되는 모양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자동차 할부금융 이율도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짐

생보사 저축성보험 지급 60조 육박

생명보험사, 지난해 저축성보험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이 60조원에 육박하며 사실상 사상 최대치
지난해 말 금융권의 고금리 수신 경쟁 등에 따른 결과, 유동성 리스크 대응이 시급한 과제

현대해상 지난해 순이익 역대 최대, 주당 1965원 현금배당

현대해상에 따르면 2022년 순이익은 5746억 원을 기록
주요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사업비율이 개선된 영향

28조 대형 기금 온다…증권사 OCIO 선점 총력전

고용부 고용·산재기금 운용 놓고 업계 경쟁 본격화
미래·NH證券 등 잇단 약진에 한투 수성 여부 주목

중소 IPO 주관 쓸어담는 한국투자증권…후끈해진 IPO 시장

상장·IPO예정기업 주관 절반은 한투…IPO 경쟁에 중소형 증권사도 합류
대어 잡아야 1위 탈환…상장 미룬 대어들 하반기 쏟아질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